

푸틴 러시아 총리, ISO 국제표준 지원 표명

제네바에서 ISO 회장단과 만나 ISO의 국제적 역할에 대해 논의



▲ 블라디미르 푸틴(가운데 오른쪽) 러시아 총리가 Boris Aleshin ISO 회장(왼쪽 두 번째), Rob Steele ISO 사무총장(가운데 왼쪽) 등과 회담하고 있다.

푸틴 러시아 총리가 무역, 산업, 기술에 기여하는 ISO 국제표준의 개발에 자국의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표명했다.

푸틴 러시아 총리는 지난 6월 15일 스위스 제네바 UN 사무실에서 2011~2012 임기의 Boris Aleshin ISO 회장, Rob Steele ISO 사무총장, ISO 러시아 회원국인

Grigory Elkin GOST R 회장과 회담을 가졌다.

국제노동기구의 연례 총회에 연선을 위해 제네바를 방문한 푸틴은 ISO의 업무가 각 국가마다 다른 수준의 경제, 산업, 기술환경을 초월해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500여 명 이상의 러시아 전문가가 ISO 업무에 참여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러시아가 지속적으로 국제표준화 활동에 활발히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푸틴 총리는 현 러시아 국적의 ISO 회장인 Dr. Aleshin에게 감사를 표하며 "Aleshin의 경험과 지식이 ISO의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전했다.

2013년 Saint Petersburg 시 유치 ISO 총회 성공 기원

푸틴은 GOST R이 2013년 ISO 총회를 러시아의 Saint Petersburg에 유치할 것을 언급하며, "연방정부와 Saint Petersburg 시 당국은 성공적인 ISO 총회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ISO와 협력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통해 ISO에 참가하는 러시아 및 독립국가연합의 전문가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약속했다. 이에 Rob Steele ISO 사무총장은 푸틴의 ISO에 대한 관심에 감사를 표했다.

또한 사무총장은 기관 및 기업의 효율, 효과적 운영을 위한 ISO 9001, ISO 14001 등 ISO의 경영시스템표준의 세계적인 사용을 예로 들었고, 푸틴이 제 100차 국제 노동 컨퍼런스에서 연설한 것을 언급하며, 2010년 11월에 사회적책임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ISO 26000이 발간된 것을 강조했다.

Rob Steele 사무총장은 "표준은 원칙적으로 실용적이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리며, "국가적 차원에서 국제표준의 중요성을 인식한다면, 국제표준은 경제성장과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언급했다. ☺